

건강을 지키는 현장

사진 통한 자기 발견에 힘쓰고 있는
大韓寫眞藝術家協會

“사진에 삶의 철학을 담으며,
건강관리도 합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500명에 가까운 회원이
가입해 있는 전국적인
조직



바쁜 현대인. 그들에겐 즐거운 취미활동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스트레스에 쌓여야 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이런 정신없는 틈을 타 예술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도모하는 모임이 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

50년 가까이 한국사진계의 맥을 이어온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사진을 통한 자기발견과 정기출사를 통한 건강관리를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사진예술에 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실력을 이어오고 있는 협회를 찾아가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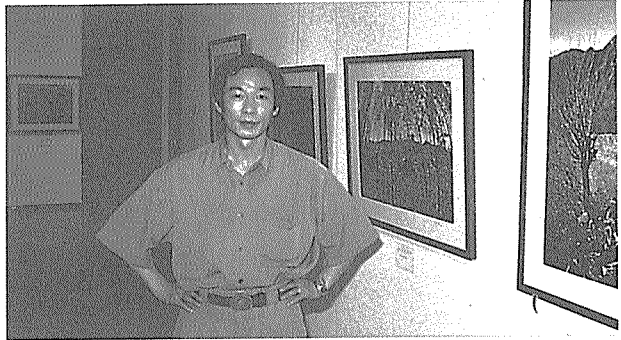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 한국 사단의 역사를 대변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시작된 것은 1945년입니다. 故 白鳥 李海善 선생이 창립하셨죠. 그후 6.25를 겪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활동이 뜸해졌다가 7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장 김용필씨(교사)의 협회 창립에 관한 설명이다.

다른 예술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50년 가깝도록 그 맥을 이어오면서 한국 사단의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김회장의 이야기다.



산과 바다를 찾아 다니며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작품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최진연 총무이사.

• 사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

현재 안준천 교수, 이순홍박사(병원장)가 고문으로 있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서울지역 회원 80명, 지방지회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단체이다.

『회원 중에 사진에 관한 전문 직업인이 약 반정도입니다. 나머지 반정도가 사진예술을 사랑하는 사진쟁이 들이죠. 회원들은 주로 교사, 의사, 공무원, 신문사 및 프로구단 사진기자, 디자이너, 기타 자유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진에 관한 감각이나 실력은 이미 아마추어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회 최진연 총무이사의 회원들에 대한 설명이다.

• 스트레스 해소, 운동에도 도움돼 일석이조의 효과

한편 최진연 총무이사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일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회원 대부분이 생업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사할 때는 주로 바다, 산, 강 등을 찾아 다니니까, 도시에서의 갖은 스트레스를 한 순간에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잘 안가는 곳, 즉 험한 산의 정상, 깊은 계곡들을 주로 걸어서 다닙니다. 따라서 일반 등산인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되죠. 또 그런 곳의 공기는 얼마나 맑겠습니까? 이보다 더 건강에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는 또, 『게다가 카메라 화인더를 통해 보이는 풍경은 실제보다 더 정감있고 환상적이죠. 자연과 인간의 합일점을 찾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카메라가 해준다고 할까요.』라며 사진 예찬론을 펴기도.

카메라 화인더를 통해 보이는 풍경은 실제보다 더 정감있고 환상적이죠. 자연과 인간의 합일점을 찾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카메라가 해준다고 할까요.

◦ 국전 초대 작가로 배출했다

대한사진예술가 협회의 활동은 매월의 정기 출사와 월례회의 품평회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봄·가을에는 전국의 회원이 모여 합동출사를 찾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을 전체 회원전을 열고,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도 하기도 한다고.

『정기회원전을 통해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사진 공모전이나 사진전에 저희 회원들의 우수 작품을 엄선·출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전초대작가 6명이 저희 협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올해에도 2명이 입선했습니다.』라고 최진연 총무이사가 설명했다.

◦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해볼만 하다

협회의 회원이 되려면, 우선 신청서(협회소정 양식)과 작품 2~3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매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이 승인되면 일단은 연구회원으로 등록하고, 그후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정회원으로 승격하게 된다.

회원 신청 대상은 물론 사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연락처는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24-12 본고빌딩 401호(영상스튜디오 · 267-1226, 279-9966)로 하면 된다.

◦ 사진에도 삶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한편 최진연 총무이사는 사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사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일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아무 카메라나 갖고 셔터만 누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진은 크게는 역사의 보존이며, 한 시대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찍는 사람의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자기 자신의 철학이 들어있는 숨쉬는 사진을 찍어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진 예술을 사랑하며, 사진을 통한 자기 발견을 모두에게 권한다.



◦ 사진예술 통한 자아발현, 건강관리에 힘써보자.

그들은 지나치게 틀에 매인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예술을 사랑하며 사진을 통한 자기발견을 모두에게 자신있게 권한다. 또한 그들은 사진찍기가 취미생활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더욱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예술이란 자기발현을 위한 수단이며 자기구현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시대의 저변에 있으며, 예술가는 시대의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분발함으로써 자신을 뚜렷하게 구현하고 시대의 정점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